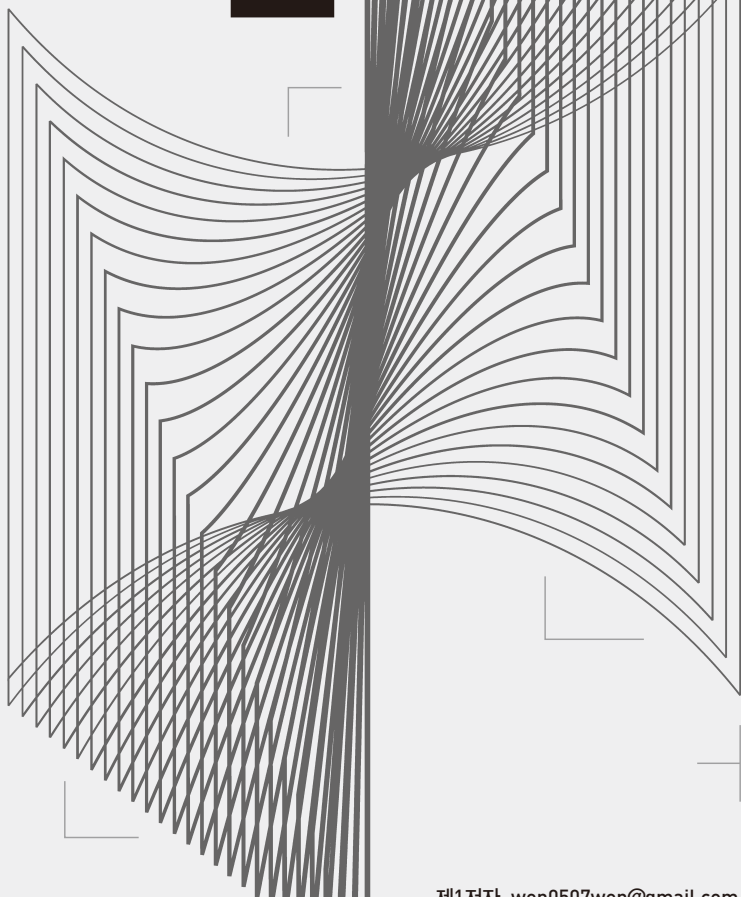


비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7호

(2025/겨울)



제1저자, won0507won@gmail.com

현대의 르네상스 인간

구조적 문제 제기

최원석(작은 세상의 다양성)

<https://doi.org/10.21738/JHS.2025.12.57.157>

I. 서론

“... 나이 어려 어리석게도 나의 순수한 환희를 확인하리라고 기대했던 그 학문이 나의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배움이 좌절을 안겨주는 역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인식되는 문제였다. 노자 역시 도덕경에서 “배움을 끊으면 우환이 없다”라고 강론하였으니**, 배움은 세상의 다른 측면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틀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류는 이러한 역경을 감수하고 배움을 포기하지 않은 지식인의 노력에 힘입어 발전했으며, 특히 다양한 학문에 능통했던 지식인을 “르네상스 인간”으로 불렀다. 비록 르네상스 인간이라는 그 명칭에는 이견이 있으나, 인류 지성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은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아이작 뉴턴 등이 있다. 하나의 특수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

* Hölderlin, Friedrich, 『취페리온』, 장영태 옮김, 을유문화사, 2008, 15쪽.

** 노자, 『도덕경』, 소준석 옮김, 현대지성, 2019, 76쪽. 노자의 인용은 현대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전용한 것으로, 배움의 결과로 학문이 세상을 인식하는 고정된 틀이 되어 좌절을 만들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었다.

한 이들의 기원은 근현대를 넘어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르네상스 인간은 어느 시대에서도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진실로 배움이 우환을 야기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르네상스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조건에서 태어날 수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르네상스 인간은 여전히 탄생하고 있는가? 인류가 글자를 발명해 지적 유산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로 배움은 여가가 있는 부유한 사람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을 거치며 현대 사회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유례없이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누구나 기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았고, 인터넷을 통한 지식의 전파는 무제한에 가까워졌으며 최근 등장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누구나 문답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학습 혁명에 가까운 전례 없는 변화는 분명히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시작할 충분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토양에서 르네상스 인간은 살아나지 못했다. 사회는 어떠한 이유로 새로운 르네상스의 토양에서 르네상스 인간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맥락 속에서 전인적 인간이라는 르네상스 인간의 이상은 어떻게 약화되었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제기하고자 한다.

II. 역사와 이상

1. 르네상스 인간 이상의 형성

4차산업혁명이 대두되며 변화하는 노동 양식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했고, 자기 주도적이며 창의적이고 협력할 수 있는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전인교육”이 강조되었다.* 전인교육이 만들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지적,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한 인간, 즉 르네상스 인간의 이상으로 볼 수 있다. 르네상스 인간의 이상과 그 이상을 위한 교육은 고대 그리스와 중국에서 시작된다.

고대 그리스의 교육 이상인 “enkyklios paideia”는 전인교육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은 소크라테스의 검토하는 삶으로 대표되는 델피 신전의 경구 “너 자신을 알라”에서 엿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서양 철학의 시초로 평가되는 플라톤에게 있어 건강한 삶은 건강한 혼과 혼의 조화에 달려 있는데, 혼을 돌보는 것은 지혜 사랑을 통한 탁월함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과 실천적인 지혜를 강조했고 그 본인이 논리학, 수사학은 물론 물리학, 생물학까지 아우르는 전인의 예시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공자의 사상에서도 전인 교육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논어에서 나

* 한용진·신현정, 「문명사적 전환기의 전인교육 개념 재고」, 『인문사회 21』, 12(1)(2021), 843~858쪽.

** 안성찬, 「전인교육으로서의 인문학: 독일 신인문주의의 교양 (Bildung) 사상」, 『인문논총』, 62(2009), 99~126쪽.

타나는 ‘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위한 삶과 인성의 조화를 반영하는 교육 방법이 그것이다.*

고대부터 시작된 온전한 인간, 즉 르네상스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논의는 다양한 사상과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온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구원을 위한 강렬한 종교적 움직임을 일으키기도 했고, 이에 반발하여 인간 자체의 능력과 이성적인 합리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와 인본주의가 나타나기도 했다. 현대 사회가 시작되며 모두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고, 이제 르네상스 인간을 만들기 위한 전인교육은 제도적 차원에서 연구되어 실행되고 있다.

2. 현대의 르네상스 인간

과학적 회의주의와 합리적 사고가 자리 잡고 보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현대적인 르네상스 인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다른 무엇도 아닌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자족적인 것으로 여겼고**, 이상적인 인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교육 역시 인간의 탁월함을 실행하여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의 평등함과 풍족함을

* 홍신기, 「논어에 나타난 교육사상의 전인교육적 의미 탐색」, 『초등교육학연구』, 14(1)(2007), 233~250쪽.

** Aristoteles, 『니코마코스 윤리학』,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2013, 27쪽.

누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보면, 대한민국의 지수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현대의 교육과 물질적 풍요로움이 인간의 이상을 이루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괴리의 원인으로 교육의 구조적 문제가 지목된다. 후술할 심각한 경쟁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 자체가 단기적 이익에 치중한 전문교육에 편향되어 교양교육의 위기, 즉 인문학의 위기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인문학으로 번역되는 “liberal arts”는 본래 자유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람됨과 주체성을 위한 학문을 뜻하는 용어로, 문학, 역사, 철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학 혹은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기본적인 체계로 자리 잡아 왔다.*** 과학적 논증과 합리적 사고는 인류의 폭발적인 발전을 이끌었지만, 역설적으로 교육의 구조를 악화시키게 되었다. 앞서 논의된 전인 교육의 역사적인 의미와 현대적 전인 교육의 목표를 고려하면, 본 논문의 르네상스 인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하나의 전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유연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위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창의적이고 협력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OECD, OECD Better Life Index, (접속일: 2025.10.08). URL: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 김성우 · 최종덕,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 철학』, 20(1)(2009), 11~42쪽.

*** 김성우 · 최종덕 · 앞의 글.

III. 구조적 문제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르네상스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인류의 열망과 그에 대한 체계적인 사유는 고대부터 이어진 깊은 전통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르네상스 인간의 실현은 구조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고 논의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르네상스 인간의 실현을 막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식과 교육, 그리고 문화의 차원에서 분석하며, 사회 현상을 논의된 문제의 사례로 제시한다.

1. 지식의 발달과 전문화

지식은 또 다른 지식을 만들어낸다. 인류는 기록을 시작한 이래 방대한 양의 지식을 쌓았고, 특히 근대에 이루어진 지식의 팽창은 급격했다. 그에 반하여 한 사람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총량은 제한적이다. 이 간극은 교육의 목표가 전인적 성장에서 한 사람의 좁은 분야에 대한 전문화로 바뀌도록 유도했다. 계속되는 혁신으로 정보의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은 더욱 좁은 전문 분야로 제한되는 현상을 Jones (2009)는 르네상스 인간의 죽음(death of the Renaissance man) 효과라고 이름 붙였다.* 인류가

* Jones, B. F., "The burden of knowledge and the "death of the renaissance man": Is innovation getting harder?"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6(1)(2009), pp.283~317.

축적한 지식의 양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기류는 통계적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1964년, 오직 600개의 학술지만이 과학인용색인(SCI)에 등재되어 있었지만 2009년에는 그 수가 8,060개로 증가했다.* SCI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라도 동료 평가를 거친 글을 포함하면 2006년에만 약 1,350,000개의 논문이 출판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문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를 조망하며 통찰하는 것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하나의 개인이 과거의 르네상스 인간만큼 넓은 분야를 깊게 수학하고 기여하는 것은 인간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학문의 근원, 즉 비판적 사고 능력을 위시한 르네상스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욱이 학계는 이미 연구자에게 둘 이상의 학문을 융합하여 연구하고 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맞추어 교육계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때로 인문학을 융합하여 교육하는 ‘STEM (혹은 STEAM)’ 교육을 통해 변화된 사회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깊게 전문화된 지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달리, 인문학을 포함한 융합 교육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박일우(2015)는 대학이 이미 취업 준비 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죽어버린’ 인문학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

* Larsen, P., Von Ins, M., "The rate of growth in scientific publication and the decline in coverage provided by Science Citation Index", *Scientometrics*, 84(3)(2010), pp.575~603.

** Larsen, Von Ins, 앞의 글.

했다.* 같은 글에서 저자는 또한 오늘날 인문학이 잊어버린 본래의 소명이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창의적 문제 해결이며, 이는 교양교육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제시했다.** 지금의 대학과 고등교육은 흘러넘치는 지식의 양에 압도된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정보의 바다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적인 인문학적 교양교육을 경시하고 있다. 인문학 교육의 실패의 부작용은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 세대의 문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교양교육의 결여가 아닌 인식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퇴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해력은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을 넘어 글이 함의하고 있는 맥락을 아는 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지식의 발달에 따라 인간이 통합적인 사유를 하는데 한계가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문학 교육은 경시되고 있다.

2. 교육의 도구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문학이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데 중요하며 현재 인문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여러 학자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현대 교육의 구조 자체가 이상적인 인간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 박일우, 「교양기초교육을 통한 인문학과 대학 되살리기」, 『교양교육연구』, 9(3)(2015), 97~126쪽.

** 박일우, 앞의 글.

이루어지지 않고, 공교육을 넘어 가정, 사회, 그리고 문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쟁과 성과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학교 교육은 교육의 다른 차원까지 영향을 미친다.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고 단지 그 측정값을 위해 교육하는 구조로 변질된 것은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만 아니다. Biesta (2009)는 “우리는 교육에 대한 논의가 측정과 그 결과의 비교에 지배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한국인에게 학교 교육의 목적은 어떠한 자신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통로이기보다 사회적 성공과 신분의 상승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고는 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발전을 넘어 직업, 배우자, 사회적 대우, 심지어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좋은 학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쟁적인 분위기는 학교 교육을 넘어 가정과 사회의 교육 장면에서도 측정 결과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낳는다.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좋은 학력인 것을 보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것은 필연적이다.*** 좋은 학력을 얻기 위한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서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학문을 교육하는 것은 학교, 교사, 그리고 학생도 원하지 않는 일이다.

* Biesta, G., “Good education in an age of measurement: On the need to reconnect with the question of purpose in education.” *Educational Assessment, Evaluation and Accountability*, 21(1)(2009), 33~46.

** 보건복지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2023.

*** 보건복지부, 앞의 글.

학생들이 정해진 몇 과목의 성취도를 평가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학벌을 얻게 되는가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기 위한 실용적인 교육은 형식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학생은 이상적인 인간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없다. 학생들이 사유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현실은 장래 희망이 없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증명한다. 2023년 40% 이상의 중학생과 25% 이상의 고등학생이 희망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이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은 일견 쉬운 일로 보일지 모르나, 나 자신을 아는 일은 다양한 현실적 경험과 깊은 내적 성찰이 필요한 일이다. 극단적인 경쟁이 일어나는 현재 교육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수준의 발달조차 저해되고 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비고츠키(Lev Vygotsky)는 인간의 발달이 고립된 내적 과정이 아닌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은 플라톤의 대화와 논증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견해와도 일치한다. 철학하는 일은 둘 이상의 영혼이 부딪혀 어떠한 불꽃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표현,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 나 자신을 본다는 유명한 눈부처의 비유처럼, 인간의 사유는 상호작용과 대화 속에서 성장한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직접 경험할 기회 없이 평가하기 위

* 교육부, 『2023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발표』, 2023.

한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어떠한 자격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교육은 단지 청소년기의 학생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인류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는 학문을 더 세분화하여 깊게 만들었고, 이러한 구분은 분야의 이름을 넘어서 학제 간의 경계선이 되었다. 확고하게 그어진 경계선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많은 학과로 나뉜 학부의 구조처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독립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학위 과정은 학과의 정해진 틀 안에서만 수행해야 하는 연구가 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논문 수, 피인용 수 등의 지표로 정량화되며, 정해진 분야 외의 연구는 지원받기도, 인정받기도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정량적 지표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출판하거나, 소멸하거나(Publish or perish)”라는 문구는 냉엄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소멸하지 않기 위해 바쁘게 실적을 쌓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분야의 탐구는 기대할 수 없다. 측정 결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극심한 성과 위주의 교육 구조에서 전인적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3. 피상적인 문화

기본 교육이 보편화되고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다. 인터넷

* Rawat, S., Meena, S, “Publish or perish: Where are we heading?” *Journal of research in medical sciences: the official journal of Isfah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19(2)(2014), p.87.

보급과 함께 평생교육 장면에서까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급격히 대두된 LLM의 등장과 그 영향은 교육산업에도 예외 없이 미치고 있으며, 교육의 패러다임에 유례 없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책과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개인의 성향과 수준에 맞춘 공부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이 사실상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되었고, 시민 개개인이 누구나 주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학습 혁명이자 학습의 민주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새로운 르네상스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사회가 깊이를 기피하고, 쾌락과 당장의 위안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인문학자는 알게 소비되는 대중 인문학을 경계하고 있다. 많은 저서와 번역서의 머리말에서 단지 위안과 합리화를 위해 ‘인문학’을 소비하는 대중을 비판하는 인문학자를 만나기 쉽다. 이러한 견해는 일부 보수적인 학자의 비난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대중의 얇고 가벼운,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하는 인문학적 소양은 최근 10여 년간 나타난 시장의 흐름이다. 박찬준(2022)은 2010년대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유례없는 성공을 거

* 안현용,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국내의 디지털 평생교육 연구 동향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9(3) (2023), 105~135쪽.

** 임완철, 「인공지능기반 개인맞춤교육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비평』, (56)(2024), 178~224쪽.

둔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지대넓얏)』을 분석했다.*
 저자는 “지대넓얏”의 성공에는 학습서 형식의 구성, 단순한 구조화와 함께 “지식 수준이 들통날까 두려운,” “한 권으로 편안하게 통달하는” 과 같은 심리가 바탕이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즉, 미디어 영역 전반으로 확대된 대중 인문학 열풍의 저변에는 인문학의 상품화, 그리고 인문학 본연의 성찰 정신에서 이탈한 허영의 수준에서만 충족하는 문화가 깔려있다.***

이러한 문화의 단적인 예로 의미가 변질된 채 인문학이 슬로건이 되어버린 경우를 볼 수 있다. 호라티우스의 시구 “*Carpe diem*”은 “오늘을 즐겨라.”로 알려져 쾌락주의적 문구로 소비되고 있다. 이 시구의 원전을 찾아가서 전체 시를 읽는 것, 시인의 삶과 로마의 문화적 맥락에서 시를 음미하는 것, 나아가 이 시가 현대인의 삶에 어떠한 울림을 주는지 성찰하는 것 등은 부차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독서, 토론, 그리고 사유는 깊이를 위해 거쳐야 하는 즐거운 과정이 아니라 불편하기만 한 기피하고 싶은 난관이 되었으며, 이제 대중은 무엇을 사고할지 선택하는 일조차 “큐레이팅”이라는 이름으로 인문 엔터테이너에게 미루고 있다. 특정 철학자의 저서가 미디어에서 한 번 성공을 거두면, 그에 관련된 교양서가 우후죽순 발간되는 모습은 앞서 논의한 대중 인문학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진의와 맥락을 궁금해하지 않고 체면 때

* 박찬준, 「2010년대 한국 출판계의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에 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115쪽.

** 박찬준, 앞의 글.

*** 양은아, 「인문학 소비시대 대중인문학 열풍과 과잉소비에 대한 비판적 탐구」,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23(4)(2020), 55~91쪽.

문에 궁금해하며 비판 없이 수용하는 문화는 결국 이성적 논의를 마비시키고 성찰을 불가능하게 한다. “성찰 불능”은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지성주의를 정의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인문학의 위기와 대중 인문학의 과소비는 당장의 위안을 중시하는 문화를 나타내는 현상이며, 르네상스 인간이 요구하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억압한다.

IV. 르네상스 인간의 실존

■ 르네상스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는 제도와 문화 속에서 자신을 끼워 맞추지 못하고 표류한다. 제도적으로 다양한 학문을 원하는 만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는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어려울뿐더러, 배움에는 때가 있으며 각종 사회적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이들을 압박한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과 동시에 배움을 추구할 여유는 보통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삶과의 타협 사이에서 결국 지치거나 포기하게 된다.

이들이 살아갈 새로운 르네상스는 곧 다가올 미래가 아니다. 이번 시대의 르네상스는 이미 AI와 같은 기술과 함께 배포되었다. 현대 사회가 마주한 “새로운 르네상스”는 이전과 같은 일부 지식인층이 주도하는 르네상스가 아닌,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개개인에게 책임과 성장 가능성이 분산된 르네상스이다. 본 논문

* 강준만, 「왜 대중은 반지성주의에 매료되는가?: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반지성주의: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반지성주의」, 『정치정보연구』, 22(1)(2019), 27~62쪽.

에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여러 논점을 르네상스 인간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로 재구성하였다. 앞서 논의한 구조적 문제가 해소 될 때, 개인이 르네상스 인간의 이상에 따라 사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학습 혁명 이후의 새로운 르네상스 인간의 실현 조건으로 제안한다.

V. 나가며

■ 현대 사회는 다시금 지식의 중흥기이자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에 의문을 던지는 시기에 진입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생활 양식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 인간은 각자 주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며 덕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이상이다. 이러한 이상은 수천 년간 동서양을 통틀어 나타난,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의 답변이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르네상스는 과거와 다르다. 교육과 학습의 권리가 지금처럼 보장되고 누구에게나 자아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문화는 전례 없는 사회 현상이다. 르네상스 인간의 일반적인 의미인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은 앞서 논의한 학습 혁명으로 전과 같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도달할 수 있는 이상이 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인간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다방면에 뛰어남과 함께 합리적, 비판적, 그리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르네상스 인간의 실현을 구조적 문제가 방해하고 있다. 그 구조적 문제를 지식의 발달과 그에 따른 좁은 전문화, 교육

의 도구화, 그리고 생각을 피하고 얕음에 만족하는 문화로 정의하였다. 인터넷과 AI를 거쳐 진보된 기술과 함께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르네상스는 앞서 논의한 구조가 극복될 때 르네상스 인간이 실현될 토양이 될 것임을 제안한다.

- ◆ 강준만, 「왜 대중은 반지성주의에 매료되는가?: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반지성주의: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반지성주의」, 『정치정보연구』, 22(1)(2019), 27~62쪽.
- ◆ 김성우·최종덕,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 철학』, 20(1)(2009), 11~42쪽.
- ◆ 박일우, 「교양기초교육을 통한 인문학과 대학 되살리기」, 『교양교육연구』, 9(3)(2015), 97~126쪽.
- ◆ 박찬준, 「2010년대 한국 출판계의 인문학 베스트셀러 현상에 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 ◆ 안성찬, 「전인교육으로서의 인문학: 독일 신인문주의의 교양 (Bildung) 사상」, 『인문논총』, 62(2009), 99~126쪽.
- ◆ 안현용,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국내의 디지털 평생교육 연구 동향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9(3)(2023), 105~135쪽.
- ◆ 양은아, 「인문학 소비시대 대중인문학 열풍과 과잉소비에 대한 비판적 탐구」,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23(4)(2020), 55~91쪽.
- ◆ 임완철, 「인공지능기반 개인맞춤교육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비평』, (56)(2024), 178~224쪽.
- ◆ 한용진·신현정, (2021). 「문명사적 전환기의 전인교육 개념 재고」, 『인문

사회 21』, 12(1)(2021), 843~858쪽.

- ◆ 홍신기, 「논어에 나타난 교육사상의 전인교육적 의미 탐색」, 『초등교육학 연구』, 14(1)(2007), 233~250쪽.
- ◆ 노자, 『도덕경』, 소준석 옮김, 현대지성, 2019.
- ◆ Aristoteles, 『니코마코스 윤리학』,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2013.
- ◆ Hölderlin, Friedrich, 『휘페리온』, 장영태 옮김, 을유문화사, 2008.
- ◆ 교육부, 『2023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발표』, 2023.
- ◆ 보건복지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2023.
- ◆ Biesta, G., “Good education in an age of measurement: On the need to reconnect with the question of purpose in education.” *Educational Assessment, Evaluation and Accountability*, 21(1)(2009), pp.33~46.
- ◆ Jones, B. F., “The burden of knowledge and the “death of the renaissance man”: Is innovation getting harder?”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6(1)(2009), pp.283~317.
- ◆ Larsen, P., Von Ins, M., “The rate of growth in scientific publication and the decline in coverage provided by Science Citation Index.” *Scientometrics*, 84(3)(2010), pp.575~603.
- ◆ OECD, OECD Better Life Index, (접속일: 2025.10.08). URL: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 ◆ Rawat, S., Meena, S, “Publish or perish: Where are we heading?” *Journal of research in medical sciences: the official journal of Isfah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19(2)(2014), p.87.

사회가 직면한 인공지능 시대는 르네상스로 이어질 도구가 일부 지식인이 아닌 모든 개인에게 있으며, 따라서 모두가 책임과 가능성을 나누어 가진다. 새로운 형태의 르네상스 시대에서 르네상스 인간의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 지식, 교육, 그리고 문화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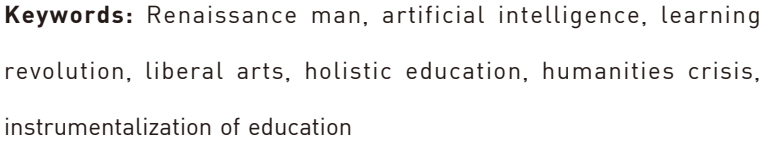


The Modern Renaissance Man: Structural Constraints to Its Realization

Choi, Won Seok

(The Diversity of Small Worlds)

■ This study explores structural barriers that inhibit the realization of the “Renaissance man” in modern society. The Renaissance man represents the ideal of human wholeness that has been pursued by holistic education since ancient times. However, the expansion of knowledge, the instrumentalization of education, and a culture favoring superficial ease function as structural constraints. This study highlights that,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tools of a new Renaissance are distributed to all, making its responsibility and potential shared by everyone. The resolution of these structural constraints is presented as a prerequisite for realizing the ideal of the modern Renaissance man.



- 178